



마고와 파올로



엄마? 오늘 친구에게 좀 못된 말을 했어요.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.



잠깐만요! 그냥 침례를 다시 받으래요! 그러면 다시 깨끗해질 수 있잖아요.



그럴 필요는 없어. 지금 바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성찬을 취할 때 더 잘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!

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? 하나님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내일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할래요.



물론이지.



그 주 일요일 ...

이번 주에는 친절해지기 위해 더 열심히

노력해야지!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알아.